

자성과 쇄신 지속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발족

자성과 쇄신을 종단의 핵심 기조로 확립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립됐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초대 본부장에 도법 스님을 6월 30일 위촉했다. 사무총장에는 해일 스님이 위촉됐다.

종단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을 통해 자성과 쇄신 결사가 한국불교 변화의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됐고 이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추진본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18일에는 결사 추진본부 설치 계획(안)과 설치 인력이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전달됐고, 6월 13일에는 추진본부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자승 스님과 현승 스님, 도법 스님 등이 참석했다. 6월 20일에는 준비위원회가 열렸으며 6월 28일 총무원장 종령기구로 설치령이 제정됐다. 7월 5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추진본부 현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종령기구인 이 기구는 앞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중앙종무기관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운동적 성격의 결사가 병행된다.

결사의 확산과 실천 주도위해 종평위·민추본·화쟁위 통합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총재는 당연직으로 총무원장이 맡는다.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은 개별 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안에

따라 추진본부와 결합해 자성과 쇄신 결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사무대중 결사위원회가 구성돼 추진본부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종단 내외의 신망있는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구별로는 결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구의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교구위원회로 개편된다.

사무대중 결사위원회는 승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9~11인 내외로 구성되며 결사의 범 종단적 추진을

위해 신도단체, NGO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대중 결사위원회에서는 5대 결사의 각 부문별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추진본부장에 위촉된 도법 스님은 "결사 추진본부와 종단이 과거와 현재를 잘 살피고, 미래를 잘 모색하기 위해 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마음들을 잘 살려서 본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원 기자

"한국 불교 현실에서 결사 중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위촉된 도법 스님



"한국 불교의 현실을 생각하면 자성과 쇄신 결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자성·쇄신·결사의 3가지를 책임지고 내용으로 담아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도법 스님은 위촉수여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본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꼭 하고 싶은 일을 맡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엔 통합되는 각 기구들의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기존에 하던 일들이 축소된다면 결사를 안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결사의 정신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합이 되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의 본부장 위촉에 대해 불교계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님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나의 행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나를 좌파와 진보로 규정하는 것들은 외부에서의 규정일 뿐, 나는 불교적 대안과 사회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며 때로는 좌파,

“결사의 정신으로

함께 채워가자

때로는 우로 움직였다. 삶의 연장선일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스님은 또 앞으로 추진 본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80년대에 <화엄경>을 만나면서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교적 해법을 고민하며 살아왔다. 화쟁과 결사가 내용적으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추진본부에 미리 짜여진 내용은 없다. 앞으로 만들고 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원 기자

"불교수목원에 경전 속 나무는"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서 의견 모아

조계종이 설립 추진 중인 불교수목원에는 불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 식생이 심어지며 공익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장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를 사회로 김용식 교수(영남대 조경학과), 류광수 국장(산림청 산림보호

국), 이영경 교수(동국대 조경학과)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해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윤여창 교수(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용창 원장(국립수목) 등이 종합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경 동국대 교수는 "수목원 건립은 진자 연적 종교로서의 불교 정체성을 알리고 사찰림의 공익적 기여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한마음수련센터 '첫 삽' 마음 수련을 통한 사회 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단양군의 지역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천태종 한마음수련센터가 첫 삽을 떴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27일 단양군 남천리 544번지 일원에 건립될 한마음수련센터 건립 부지에서 수련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수련센터는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2만6714㎡(8081평)부지에 천태종 50억원, 국비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 등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동섭 기자

"지역사회서 신뢰받는 불교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일 강원도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속초 신촌사복지재단(이사장 우승) 반아어린이집, 반아노인요양원,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양양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법인) 낙산 노인전문요양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단은 54개의 복지법인과 1000여 개의 복지시설이 수탁 운영되고 있다. 종단이 정부의 수탁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비리와 사고가 생기지 않게 유념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연임 확정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범각 스님이 선출됐다.

해남 대흥사는 6월 30일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범각 스님을 확정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어 스님이 범각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새 주지 범각 스님은 금명간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불자들,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평위, 종자연 등 불교계 7000명 서명

무산위기가까지 거론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불교계의 참여 속에 추가서명 작업이 완료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1차 서명 확인 과정에서 무효로 인정된 1만 1000명의 서명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6월 22~26일 각 사찰과 신도들에게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추가 서명운동 결과 불교계는 7000명 정도의 서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불교계와 서울본부의 서명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교계는 서명지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 제출했으며 서울 본부는 현재 유·무효표 분류를 통한 최종 확인 작업 중이다. 본부측은 빠르면 4일 경 서울시 교육청에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개운사길' 되찾았다

'인촌로길'이 될 뻔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진입로가 본래 이름인 '개운사길'을 되찾았다. 성북구청은 최근 '개운사길'의 도로명 표지판과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을 모두 교체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 봉행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인년은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고승 대덕스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의 원력과 불자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무척이나 고맙고 편안한 한해였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원전 피폭 등의 자연재해로 수만명이 목숨을 잃은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아랍 등 서방국가에서는 자국민들끼리 총칼을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는 현실을 시시각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또한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갈등, 남북간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 혼란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어우러진 전쟁과 죽임의 문화, 온갖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부처님 근본 마음자리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관음기도도량 안도 수향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1만개의 등불을 밝혀 국가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국운융창 및 남북 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합니다. 이 성스러운 대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불자여러분들이 「만등불사대법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2555(2011)년 7월 일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 봉행위원장 안도 수향사 주지 벽해승장

만등불사 대법회 행사 안내

- ◎ 일 시 : 2011년 7월 24일(음력 6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도 고금면 수향사 야외법석
- ◎ 행 사 : 제1부 방생의식(오전 10시) : 바닷물고기 치어 방생 제2부 문화공연(오후 1시) : 난타공연, 각설이, 트로트가수 다수 출연 흥겨운 한마당 제3부 육법공양 및 찬불가 합창 : 광주미륵사합창단 제4부 만등불사 전통의식 : 태고종 12명 작법스님 출연 중 명 : 지 암 큰스님(한국불교태고종) 환영사 : 정 암 큰스님(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 어 : 시 몽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안도수향사
-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중앙포교원 수향사신도회
- ◎ 후 원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대한불교일승종 광주전남총무원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안도불교사암연합회 좋은나라포럼 국제불교대학 광주일보 주간불교신문사 불교TV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 수향사 총무소 (061)553-0990, 011-9616-1303

만등불사 동참금 : 1인 1등 1만원